

처음 PC가 등장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사무실에서는 우선 몇 사람에게 PC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는 사무실마다 몇 대 정도만 허용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도 했고 사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들 간에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도 다양화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에서 의사통신의 수단이 되고 오락의 도구로 되고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전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적 거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발전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조직된 사이버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네트워크 사회가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도 그 망에서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사건이 터졌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은 미국에 국한하여 우리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사건의 충격파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증권시장은 그 충격파로 요동을 치고 일제히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나비효과'는 기상시스템에만 존재하



### 불자 세상보기

황명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네트워크사회와 보살

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이른바 '나비효과'는 금융시스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사건과 세계적 추가폭락은 금융시스템의 '나비효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의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여 년 전에 <화엄경>에서 그러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법계연기라고 하며 인드라마망으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인드라마망은 거대한 그물인데 그 그물의 코마다 밝은 보석이 달렸습니다. 그 보석은 서로 서로 비추어 한 보석 속에 여러 보석의 모습이 비치고 여러 보석의 모습과도 다른 한 보석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것을 상즉상입(相即相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그것이 바로 다중일(one in many)로 그 한 사람이 여러 친구들로부터 동시에 이메일을 받으면

그것이 일중다(many in one)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람의 의식이 당연히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고립된 시대에 가졌던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의식에서 상호의존적이며 상호협력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독자적 자아(autonomous self)가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로 바뀌어야 망으로 짜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의 장벽이 무너지고 종래의 대립과 투쟁의 마인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적 자아관이 끝까지 가면 바로 무아(無我)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나쁜 행동과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곧 망의 연결을 따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 나도 그 해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상극이 아니라 상생(相生), 공생(共生)의 마인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윈윈(win-win)의 생활태도인 것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이 일어나자 너도 나도 자원하여 기름제거작업에 봉사하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인드인 것입니다. 태안의 고통과 불행은 그곳 주민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로버트 리프틴(R.Liftin)은 프로티안(protean)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바로 보살입니다.

# 백팔배하며 원망하는 마음 녹여... '감사'의 생활 시작

### 남편에 대한 실망

정씨는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다. 3년 전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이혼을 생각했었다.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당시 남편의 모습은 다름과 같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자기만 편하면 되고 주관도 없다. 정씨를 속이고 몰래 카드를 쓴다. 다달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카드값에 대해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말만 수없이 할 뿐이다. 한번 믿어보려 하지만 다음 달이면 또 마찬가지다.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하고 정씨의 진정에 대해서 타당성도 없는 비난을 하곤 한다.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정씨를 몰아세운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정씨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언제 헤어질까를 생각하곤 했다. 끈질긴 인연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용서라는 말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나이 오십이 넘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대로 죽으면 뭐가 남는가 싶었다. 그러다 절에 가게 되었다.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⑤ 남편과 '共心'이 되길...

### 변하는 마음

스님이 참선 공부반에서 숙제를 내 주었다. "모든 사람의 근본은 부처입니다.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부처의 모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십시오." 정씨는 혼란스러웠다. 저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남편도 근본이 부처라니.

법문을 들으며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정씨가 조금은 이해하게 된 점이 있다. 정씨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원망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입장이고 남편은 또 자기와 맞지 않는 점 때문에 나에게 대해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3대 독자라 자기만 위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부

모님들의 잘못된 견해와 가정불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습이 되어 변화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본래 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은 적도 없고 착한 분이라는 말까지 듣는 것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었다.

서서히 남편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아가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정씨 자신만 더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억울했다.

### 업을 녹이려는 소망

정씨가 촛불재를 올리며 새해에 바라는 것

이 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직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부 사이에 이 업을 녹이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예요." 부처님께서 "이 생애 지금 업을 녹이지 못하면 녹일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신 말씀이 두렵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제 삼년째 불자인데 올해는 한번 부부간의 업을 녹여보았으면 싶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부처님 법을 몰랐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혼이혼을 하든가 이대로 죽었겠지요." 정씨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준 부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오늘도 아침에 백팔배를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녹이려고 한다. 힘들 때는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려 독송한다.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공심·공공·공제·공식하며 나뉘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걷느니라."

이제 더 이상은 '몰라서' 화만 내던 자신이 아니다. 마음으로 업을 녹이는 관법을 알게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눈물을 닦는다.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 불자의 눈

### '종교계 납세' 주장의 앞과 뒤

종교계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온 '종교계 납세' 주장이 MBC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은 납세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 사찰과 교회 등의 편법 운영과 매각 등을 중점 보도했다. 서너 차례의 기획에 의한 연속보도였고 이를 지켜 본 시청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소식이 있다.

방송이 납세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들춰내는 과정에서 사찰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민망스러울 만치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망스러운 일들이란 것은 종교계가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들춰지는 것이다. 종교계가 비과세 대상일 수 있는 명분은 그 존재의 목적이 충분히 공익적이기 때문으로 압축된다. 종교계가 갖는 공익성은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범위는 물론 민족의 정신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계가 본래의 존립목적에 충실하다면 납세에 대한 주장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종교적 현실은 다수의 성실성이 일부의 불성실에 덮여 매도되고 있다. 종교계는 비과세 대상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을 때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요구 받게 되는 것이다.

투명한 사찰 운영, 불교계가 늘 외치는 말이다. 공익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찰운영과 인력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형(典型)이 종단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불교복지계의 도약에 박수를

불교 복지계에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경영 시스템(ISO 9001/2000) 인증을 받았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거창군으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을 수탁받았다.

원각선원의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은 불교계의 복지사업이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두송종합복지관과 삼락정, 남해 화방동산 등 복지법인들이 ISO 인증을 받아 국제기준의 표준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불교계 복지기관들이 전문화된 시스템 속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기준을 충족시킨 복지법인들이 늘어남으로써 불교계의 복지수준 향상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는 것이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삶의 쉼터' 수탁으로 모두 110개의 기관을 거느리는 대형 복지재단의 면모를 보였다. 1995년 설립된 재단이 그간 얼마나 열심히 뛰여 왔는가를 보여주는 일단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불교계의 사회복지 불사는 도약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각 종단의 복지재단과 개별사찰이 운영하는 재단들이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정착시키며 불교복지의 미당을 넓혀 온 덕분이다. 불교계의 복지 불사 보다 합리적이고 탄탄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 하길 응원해 마지않는다.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불암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3-1번지
- 대표자 : 도신(지왕연)
- 사찰명 : 광통사
- 주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암리 161-4
- 대표자 : 해광(이종필)
- 사찰명 : 극락정사
- 주 소 : 경북 밀양시 내이동 923-1번지
- 대표자 : 해인(김외조)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 삼사순례 및 정월방생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삼강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독립기념관 무료입장

■ 예약전화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